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송미령·성주인·심재현·한이철·민경찬

요약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에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

-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함.
- 1인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면서 평균 귀농 가구원 수는 1.40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줄었고, 귀촌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도 1.38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감소함.

코로나19 팬데믹과 수도권 및 광역시의 주택가격 급등 등 사회·경제적 충격과 농촌 생활에 관한 관심과 선호 증가로 농촌지역의 순유입자 증가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어 60대 귀농·귀촌인이 증가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의 귀농 가구도 증가함.
- 전통적인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귀농인 수는 많았지만,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광역시 및 경기도권 시·군, 지역 거점도시나 혁신도시 및 신도시 개발지역 주변 시·군의 귀농인 수가 증가함.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고, 2019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주택가격이 도시지역의 압출 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20년 1~2월, 5~7월에는 읍 지역으로의 귀촌보다 면 지역으로의 귀촌이 더 많은 특이 현상이 발생함.
- 최근 귀촌 사유를 보면 주택, 가족과 관련된 비율이 낮아지고, 직업, 건강, 교육 등의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귀촌 목적지에 주목할 때 정주 여건의 편리성 이외에도 쾌적한 환경 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귀촌 증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임.

지속적인 귀농·귀촌 기반 유지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다운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시책 마련이 필요

- 귀농·귀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의 지속과 더불어 농업 일자리 및 농촌 생활 체험 프로그램 확대, 귀농 현장 학습과 멘토링 체계화, 농지 및 영농자금 이용의 편의성 촉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살아보기 체험 주택 확대와 빈집 등 연계 혹은 신축을 통한 임대형 주택 등의 제공도 요구됨.
-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귀농·귀촌 관련 정책 홍보 강화도 필요함.
- 귀농·귀촌을 포함해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보다 폭넓은 대응이 요구됨.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기반을 유지하고 관계인구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농촌의 여건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조성해야 함.

01

도농 간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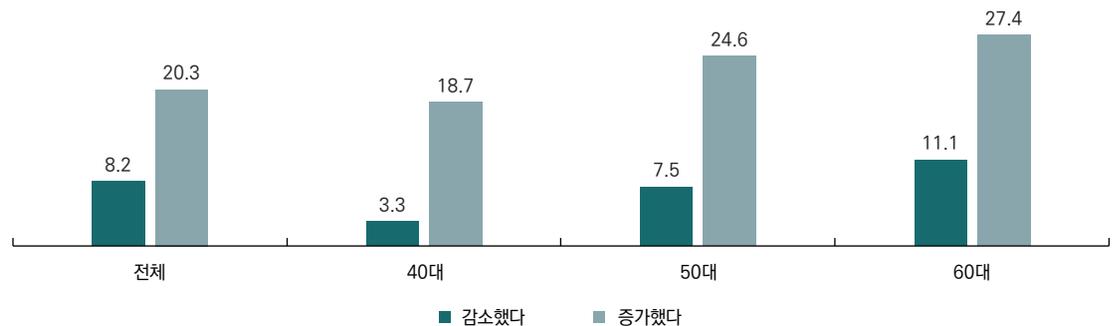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

- 2020년 전체 귀농·귀촌인 수(동반 가구원 포함)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3만 3,924명(7.4%) 증가하여 2018년 수준을 회복함.
- 귀농·귀촌이 증가한 요인은 코로나19 및 도시 주택 가격 이슈 등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으며, 농촌 생활 선호 문화의 확산 및 정부의 청년농 등에 대한 정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팬데믹과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가격 이슈, 2020년 국내 인구이동량의 이례적 증가로 농촌의 순유입자가 증가

-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한 해 내내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인 영향이 매우 컸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귀농·귀촌 의향이 20.3%가 증가했으며, 이는 인구이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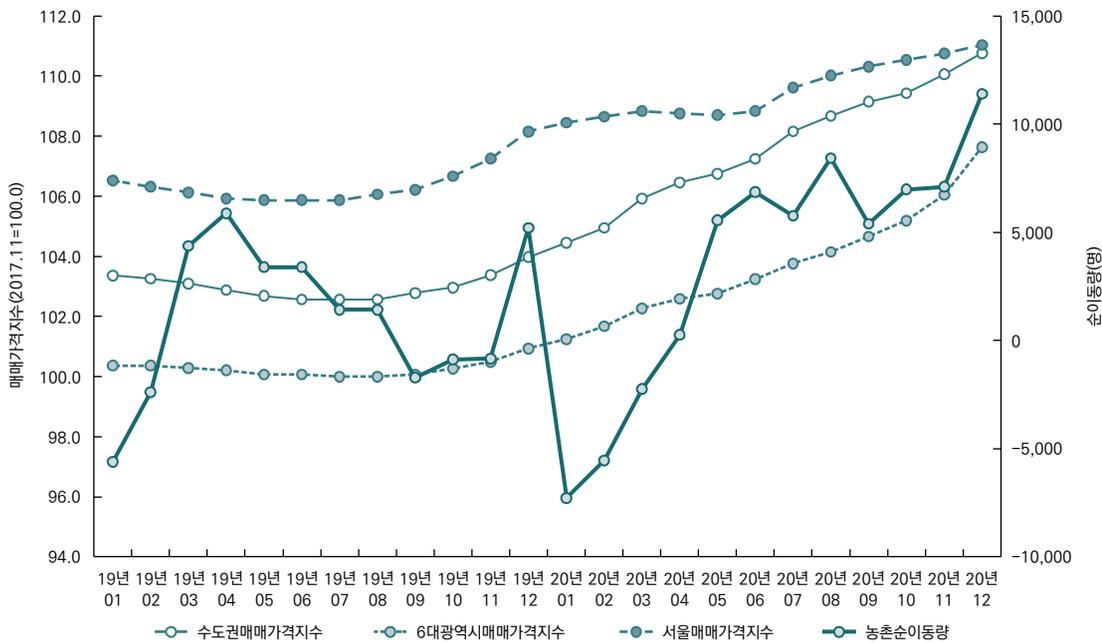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



자료: 성주인·한이철·민경찬(2021). 재인용.

- 또한, 2019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도시 주택가격은 도시지역에서의 압출 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1~10월 경 주택매매가격지수의 하락·유지기에는 농촌으로의 순이동량이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맞물려 연말로 갈수록 농촌으로의 순이동량이 증가함.
- 다만,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인 2020년 2월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 가구의 이동이 반영되어 농촌지역에서는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경향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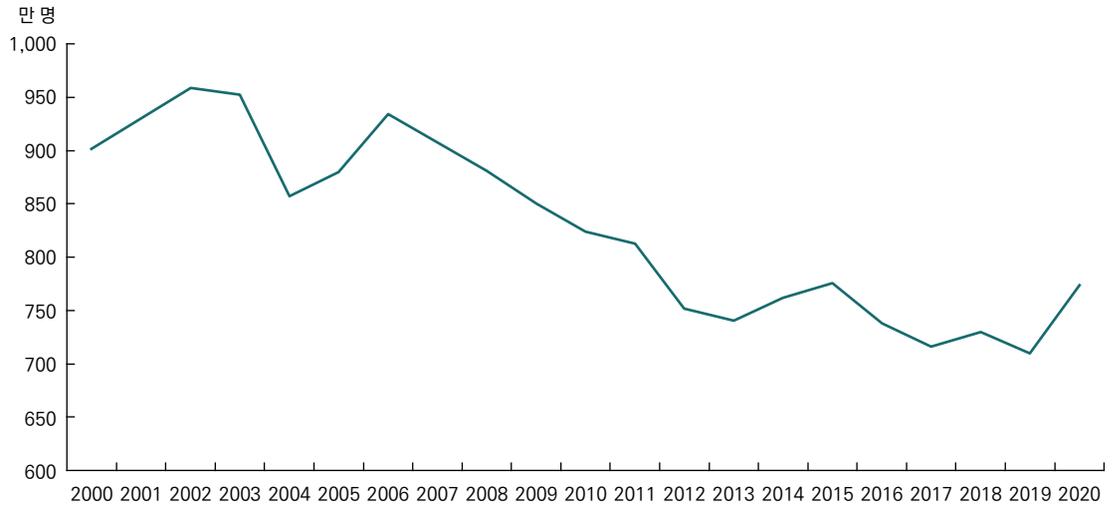
〈그림 2〉 주택매매가격지수와 농촌으로의 인구 순이동량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원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매월.

- 2020년 국내 인구이동 수는 773만 5,491명으로 2019년보다는 63만 1,093명이 증가함. 국내 인구이동량의 절대적인 증가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2000~2020년 국내 인구이동 총량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 코로나19, 도시 주택가격 이슈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반영되어 2020년에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2만 8,967명 많은 농촌 순유입자가 발생함.

〈표 1〉 도농 간 인구이동(2010~2020년)

단위: 명,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이동인구	8,226,594	7,755,286	7,378,430	7,154,226	7,297,099	7,104,398	7,735,491
농촌→도시(A)	829,814 10.1%	746,626 9.6%	707,902 9.6%	704,585 9.8%	741,380 10.2%	731,675 10.3%	761,749 9.8%
도시→농촌(B)	926,125 11.3%	828,443 10.7%	822,271 11.1%	821,021 11.5%	786,998 10.8%	745,912 10.5%	804,953 10.4%
농촌으로의 순유입(B-A)	96,311	81,817	114,369	116,436	45,618	14,237	43,204

자료: 통계청(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주민등록전입신고 원자료.

02

2020 귀농·귀촌¹⁾ 동향

2.1. 귀농 동향

귀농 가구는 1만 2,489호로 전년보다 1,067호(9.3%) 증가함. 1인 귀농 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지역별로 귀농 가구 수 총량은 전남과 경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1인 귀농 가구가 증가하면서 평균 귀농 가구원 수는 1.40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줄어듦. 1인 귀농 가구 비율은 74.1%로 전년보다 1.7%p 증가한 데 반해, 다인가구 비율은 감소함.
- 귀농 가구는 전남(18.8%)이 가장 많았으며, 경북(17.9%), 충남(11.9%), 경남(10.7%), 경기(8.9%), 강원(7.5%) 순으로 많았음. 귀농 가구는 시·도별 비율이 전년에 비해 전남(1.16%p), 충남(0.92%p), 전북(0.52%p)에서 많이 증가하였고, 경북(-0.81%p), 경남(-0.78%p), 강원(-0.71%p)에서 감소함.
-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 가구의 재배면적은 평균 0.33ha(3,306㎡)로 전년에 비해 10.0% 감소함. 귀농 가구 중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소규모 영세 가구는 전체의 83.9%로 전년에 비해 2.7%p 증가함.
- 귀농 가구 중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는 채소(43.9%)를 가장 많이 재배하였고, 논벼(29.9%), 과수(29.4%), 특용작물(25.6%) 순으로 재배함.
- 귀농 가구 중 326가구(4.0%)는 가축을 사육함. 축산 귀농 가구 중 38.7%는 한우를 사육하고, 꿀벌(37.4%), 곤충류(10.4%), 염소(4.6%) 등을 많이 사육함.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증가함. 경기,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던 이들의 비율이 높으며, 50대의 귀농이 가장 많았음.

-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1,266명(7.8%) 증가함. 귀농 가구원은 귀농인과 동반 가구원으로 구성되는데, 귀농인은 1만 2,57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하였고, 동반 가구원은 4,877명으로 4.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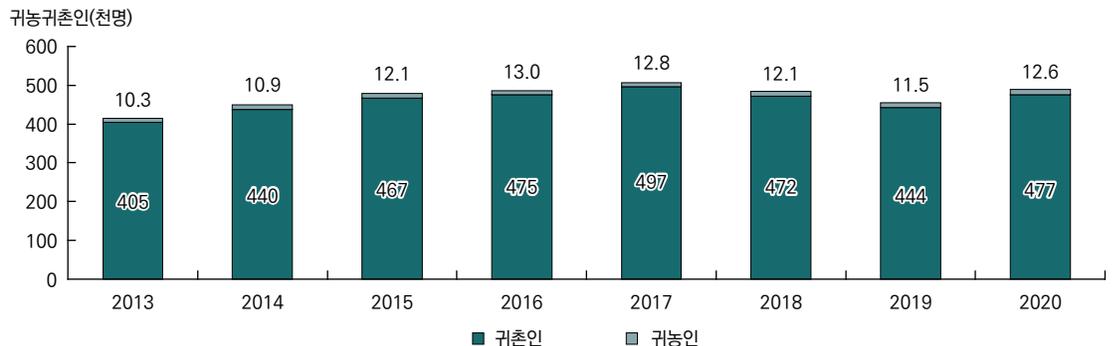
1) 귀농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귀촌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대상 기간 중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 및 동반 가구원을 제외한 이동자.

귀농 가구·귀촌 가구: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

- 귀농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51.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짐. 연령대별 비율은 30대 이하 21.2%, 40대 12.7%, 50대 31.0%, 60대 28.2%, 70대 이상 6.9%임. 전년 대비 3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40~50대 비율은 감소함.
-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3세로 0.3세 증가함. 연령대별 비율은 30대 이하 10.9%, 40대 14.2%, 50대 35.0%, 60대 32.5%, 70대 이상 7.3%로, 5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60대 귀농인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2.2%p), 50대가 가장 크게 감소함(-2.3%p). 30대 이하 젊은 귀농인은 0.4%p 증가함. 30대 이하 귀농 가구주의 증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청년농 관련 정책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라 판단됨.
- 동반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40.0세로 0.1세 감소함. 연령대별 비율은 30대 이하 47.8%, 40대 8.6%, 50대 20.5%, 60대 17.2%, 70대 이상 5.9%로, 30대 이하 동반 가구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60대 동반 가구원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2.3%p), 50대가 가장 크게 감소함(-2.7%p). 30대 이하 젊은 동반 가구원은 0.7%p 증가함.
-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8,625명(68.6%)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8.4% 늘어났지만, 전체 귀농인 중 비율은 0.6%p 감소함. 반면 다른 직업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3,945명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1.2% 늘어났고, 비율은 0.6%p 증가함.
- 귀농하기 전 거주지는 경기도 전체의 20.4%로 가장 많고, 서울(15.6%), 광주(8.3%) 순으로 많았음. 전년 대비 전북(0.9%p), 경기(0.6%p), 광주(0.6%p)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대구(-0.2%p), 경남(-0.5%p), 서울(-0.5%p)의 비율이 감소함.
- 귀농인은 경북 의성군, 경북 상주시,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북 임실군 등을 귀농 목적지로 가장 많이 선택함. 농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귀농인 이주가 활발하다 볼 수 있음.

〈그림 4〉 귀농·귀촌인 규모 변화(2013~2020년)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2.2. 귀촌 동향

귀촌 가구는 34만 5,205호로 전년보다 2만 7,545호(8.7%) 증가함.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감소하였고, 경기와 경북의 귀촌 가구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귀촌 가구의 평균 연령은 45.1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짐. 연령대별로 귀촌 가구는 30대가 2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인구 수는 2.6% 증가하였지만, 전체 가구주에서의 비율은 1.4%p 줄어듦.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30~50대 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함.
- 귀촌 가구는 시·도별로 경기(29.4%)에 가장 많으며, 경북(11.1%), 경남(10.3%), 충남(10.3%) 순으로 많았음. 시·도별 비율은 경기(3.3%p), 부산(0.7%p), 세종(0.2%p), 전북(0.1%p)에서 증가하였고, 경남(-1.4%p), 경북(-1.2%p), 충북(-0.4%p)에서 감소함.
- 귀촌 가구는 귀농 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함. 1인 귀촌 가구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하여 74.7%에 달함.

귀촌인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3만 2,658명(7.3%) 증가함. 전 연령대에서 귀촌인 수가 증가하였고, 그중 60대 귀촌인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2.2세로 전년보다 0.8세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귀촌인 중 30대 이하 비율은 48.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비율은 30대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48.0%), 50대(16.8%), 40대(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비율은 전년에 비해 30대 이하는 감소하였으나, 60대에서 9,361명이 증가하여 2019년 대비 19.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70대 이상도 4,536명으로 16.2% 증가함.
 - * 귀촌인 30대 이하 비율: ('18) 50.0 → ('19) 49.7(-0.3%p) → ('20) 48.0(-1.7%p)
 - * 귀촌인 60대 비율: ('18) 10.5 → ('19) 10.8(+0.3%p) → ('20) 12.0(+1.2%p)
-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많음. 전년 대비로는 세종과 경기에서 거주하던 귀촌인이 늘어나고, 경남과 경북에서 거주하는 귀촌인은 감소함.
- 귀촌 목적지의 경우, 대도시 인근의 도시적인 편익과 농촌적 장점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이 두드러져 귀촌인은 경기 화성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시 순으로 많이 이주함.

〈표 2〉 연령대별 귀농·귀촌인 수(2018~2020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8년	귀농인	17,856	4,233	2,613	5,729	4,199	1,082
	귀촌인	472,474	236,310	78,500	78,422	49,423	29,819
	합계	490,330	240,543	81,113	84,151	53,622	30,901
	비율	(100.0)	(49.1)	(16.5)	(17.2)	(10.9)	(6.3)
2019년	귀농인	16,181	3,413	2,167	5,377	4,185	1,039
	귀촌인	444,464	220,686	73,035	74,794	47,964	27,985
	합계	460,645	224,099	75,202	80,171	52,149	29,024
	비율	(100.0)	(48.6)	(16.3)	(17.4)	(11.3)	(6.3)
2020년	귀농인	17,447	3,699	2,210	5,403	4,925	1,210
	귀촌인	477,122	228,912	78,384	79,980	57,325	32,521
	합계	494,569	232,611	80,594	85,383	62,250	33,731
	비율	(100.0)	(47.0)	(16.3)	(17.3)	(12.6)	(6.8)
2018~19	귀농·귀촌인 수	-29,685	-16,444	-5,911	-3,980	-1,473	-1,877
	증감률	(-6.1)	(-6.8)	(-7.3)	(-4.7)	(-2.7)	(-6.1)
2019~20	귀농·귀촌인 수	33,924	8,512	5,392	5,212	10,101	4,707
	증감률	(+7.4)	(+3.8)	(+7.2)	(+6.5)	(+19.4)	(+16.2)

주: 귀농·귀촌 가구주와 동반 가구원을 포함한 수치.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귀촌 사유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 귀촌 가구의 주요 이주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높았으며(전체 귀촌가구의 34.4%), 이어서 주택(26.5%), 가족(23.4%)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2019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는 주택, 가족으로 인한 귀촌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했고, 직업, 건강, 교통과 교육을 이유로 귀촌한 비율이 증가함. 도시 인근 농촌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구성에 따른 이주 비율은 줄어들고, 농촌 공간의 산업·교육·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주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 귀농·귀촌 목적지와 이주 사유를 볼 때, 과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요가 확대하고 있음. 특히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이주 사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표 3〉 이주 사유별 귀촌가구 변화(201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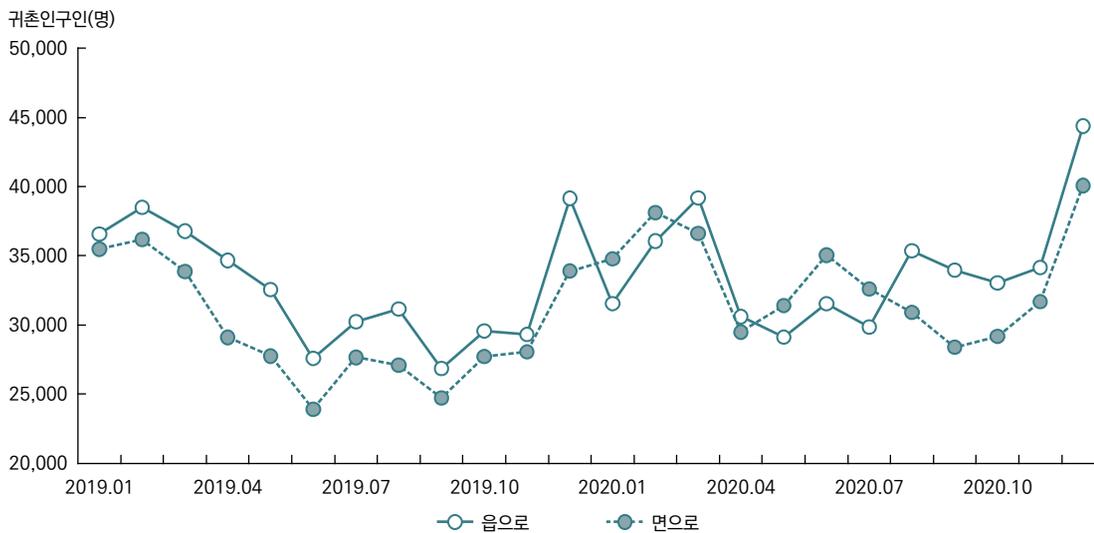
구분		전국	직업	주택	가족	기타	건강	교통	교육
2018	귀촌가구 수	328,343	109,312	93,207	80,097	19,309	13,516	8,178	4,724
	비율	(100.0)	(33.3)	(28.4)	(24.4)	(5.9)	(4.1)	(2.5)	(1.4)
2019	귀촌가구 수	317,660	108,219	85,424	78,837	16,873	14,226	8,632	5,449
	비율	(100.0)	(34.1)	(26.9)	(24.8)	(5.3)	(4.5)	(2.7)	(1.7)
2020	귀촌가구 수	345,205	118,890	91,576	80,865	20,497	16,457	9,990	6,930
	비율	(100.0)	(34.4)	(26.5)	(23.4)	(5.9)	(4.8)	(2.9)	(2.0)
'19~'20 증감량	증감 수	27,545	10,671	6,152	2,028	3,624	2,231	1,358	1,481
	비율변화량(%p)	-	0.3	-0.4	-1.4	0.6	0.3	0.2	0.3

주: * 전입사유: ① 직업(취업, 사업 등) ② 주택(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③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④ 교육(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⑤ 주거환경(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⑥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⑦ 기타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읍 지역으로의 이동을 추월

- 귀촌 인구이동의 경우, 2019년 말까지는 면 지역보다는 읍 지역으로의 귀촌 이동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2020년은 1월과 2월, 5~7월까지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읍 지역으로의 이동을 추월하는 특이 현상이 발견됨. 코로나19 충격, 심화 등으로 도시와 보다 떨어진 농촌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음.

〈그림 5〉 귀촌 인구의 읍·면 구분 목적지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매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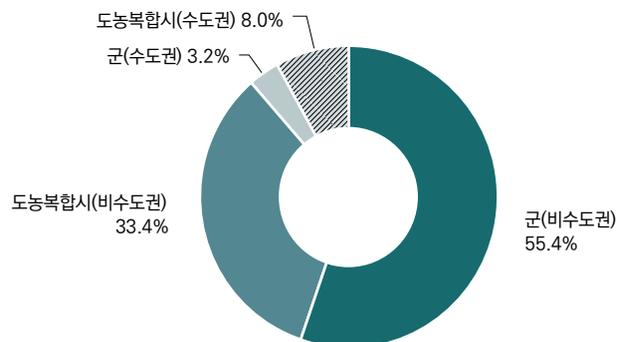
귀농·귀촌 목적지 특성 분석

3.1. 귀농 목적지의 특징

전통적 농업지역의 귀농 유입이 우세

- 귀농 상위권 시·군들은 비수도권에 다수가 분포하며, 특히 전통적 농업지역에 속한 시·군에서 귀농 유입이 우세한 경향이 지속됨.
- 2020년 기준 시·군별 귀농 가구원 수 규모를 보면, 비수도권이 전체 88.8%(2019년 대비 1.3%p 감소)를 차지하며 이 중 비수도권 군 지역에 귀농 가구원의 55.4%가 유입됨. 2019년과 비교하면 비수도권 군 지역의 귀농 가구원 수는 0.1%p 증가했고, 비수도권 도농복합시는 1.4%p가 감소한 수치임.

〈그림 6〉 지자체 유형별 귀농 가구원 구성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21). 『2020년 귀농·귀촌인 통계』.

수도권 도농복합시,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귀농 가구 수 비율이 증가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7%로 감소 추세였던 귀농 가구 수는 2019~2020년에 들어 7.8%로 증가
- 특히 수도권의 도농복합시로의 귀농 가구는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에서는 군 지역에서 귀농 가구 수가 전년 대비 7.9% 증가함.

〈표 4〉 지자체 유형별 귀농인 및 귀농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16~'19	'19~'20
수도권	2,506	2,128	1,735	1,597	1,962	-13.9%	22.9%
- 도농복합시	1,908	1,545	1,243	1,078	1,400	-17.3%	29.9%
- 군	598	583	492	519	562	-4.6%	8.3%
비수도권	18,053	17,502	16,121	14,584	15,485	-6.9%	6.2%
- 도농복합시	7,017	6,626	6,093	5,631	5,827	-7.1%	3.5%
- 군	11,036	10,876	10,028	8,953	9,658	-6.7%	7.9%
전체	20,559	19,630	17,856	16,181	17,447	-7.7%	7.8%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기존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귀농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귀농 가구원 수 상위 30위권 시·군 중 15개(50%)가 농가 수에서도 상위 30위권에 속한 시·군이며, 귀농 가구원 수 상위 50위권 기준으로는 농가 수 상위 50위 시·군이 32개(64%)를 차지함.
- 반대로 귀농 가구 증가율 기준 상위 지역 중에는 전통적 농업지역보다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한 시·군일수록 귀농 가구원 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2019~2020년 기간 귀농 증가율 상위 30위권 지역에 광역시 및 경기도권 시·군, 지역 거점도시(천안, 순천, 안동)나 혁신도시 및 신도시 개발지역 주변 시·군들이 다수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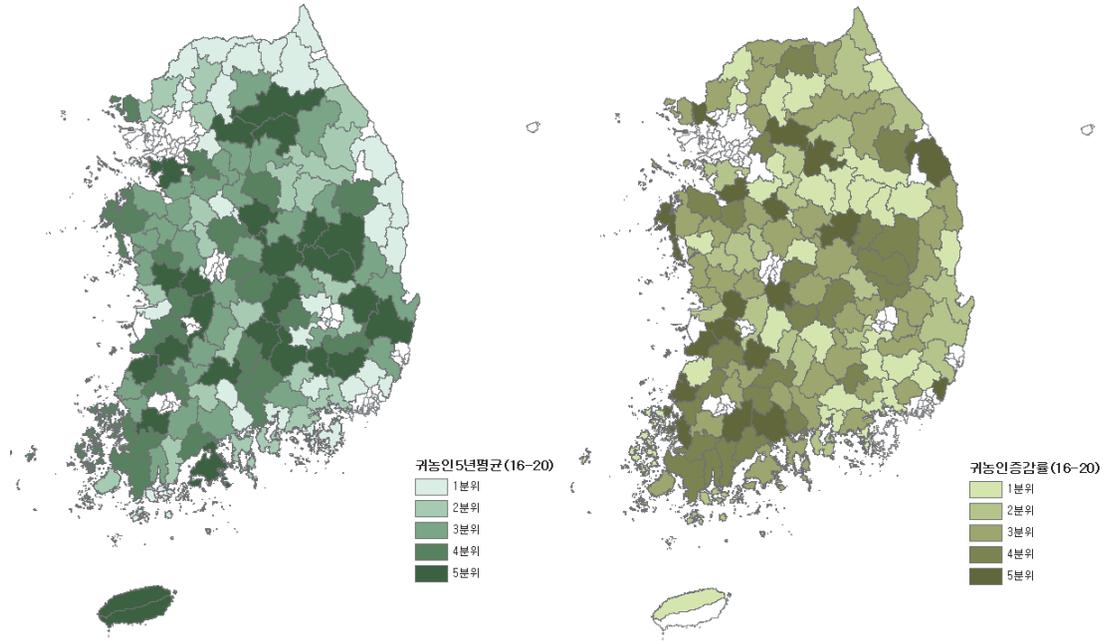
〈표 5〉 귀농 가구원 수 및 증가율 상위 30위권 시·군 목록

시·도	상위 30위권 시·군 목록	
	2020년 귀농 가구원 수 기준	2019~20년 귀농인 증가율 기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화성시 , 양평군	평택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		평창군, 양양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논산시 , 부여군, 태안군	천안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태안군
전북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김제시 , 완주군, 임실군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전남	순천시 , 나주시 , 담양군, 고흥군 , 화순군, 해남군 , 무안군	순천시, 화순군, 무안군, 진도군
경북	김천시 , 안동시 , 영천시 , 상주시 , 의성군 ,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하동군
제주	제주시	

주: 시·군별 농가 수 기준으로 상위 30위에 속한 경우 밑줄로 강조함.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21),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그림 7〉 귀농 가구원 수 및 연평균 증감률 추이 기준 상·하위 시군 분포(‘16~’20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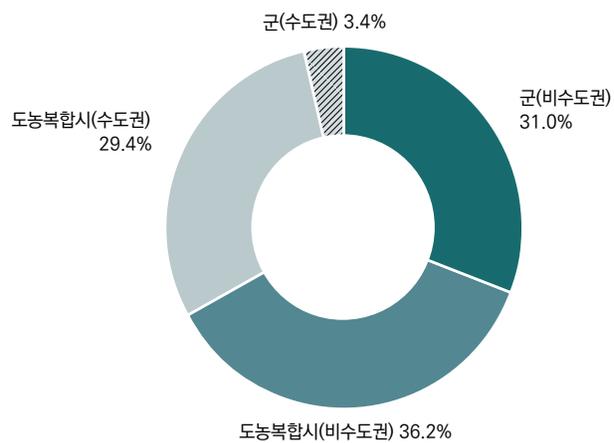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2. 귀촌 목적지의 특징

귀촌(가구원 포함) 유입은 정주 기반이 갖추어진 대도시권 중심으로 우세

- 2020년 귀촌인 분포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도농복합시 및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수도권은 67.2%로 높고, 수도권은 32.8%로 나타남.

〈그림 8〉 지자체 유형별 귀촌 가구원 구성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촌 가구원도 귀농 가구원과 유사하게 수도권 도농복합시,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상승 폭이 큼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2%로 감소 추세였던 귀촌 가구 수는 2019~2020년에 들어 7.3% 증가함.
- 특히 수도권의 도농복합시로의 귀촌 가구원은 전년 대비 25.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에서는 군 지역에서 귀촌 가구원 수가 전년 대비 7.6% 증가함. 이 중 비수도권 도농복합시는 -4.2%로 감소하여 지난 2016~2019년 추이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표 6〉 지자체 유형별 귀촌인 및 귀촌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16~'19	'19~'20
수도권	139,975	147,336	137,263	126,405	156,305	-3.3%	23.7%
- 도농복합시	123,314	129,800	121,434	111,570	140,177	-3.3%	25.6%
- 군	16,661	17,536	15,829	14,835	16,128	-3.8%	8.7%
비수도권	335,514	349,851	335,211	318,059	320,817	-1.8%	0.9%
- 도농복합시	174,324	189,577	186,924	180,577	172,934	1.2%	-4.2%
- 군	161,190	160,274	148,287	137,482	147,883	-5.2%	7.6%
전체	475,489	497,187	472,474	444,464	477,122	-2.2%	7.3%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대도시권 시·군에 귀촌인이 많고,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방거점도시에 증가량이 큼

- 귀촌 가구원 수 상위권 지역은 대도시권 시·군에 특히 우세하게 분포하며 2020년 귀촌 가구원 수 상위 30위권 시·군 중 14개(46.7%)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한 지역이며, 도농복합시가 24개(80%)를 차지함.
- 2020년 전체 귀촌 가구원 중 40.4%가 수도권, 광역시에 분포하며 귀촌 가구원 증가율에서도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이 높은 수치를 나타냄.

〈표 7〉 시·군 유형별 귀촌 가구원 수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2019~20년	5년 평균(2015~20년)
수도권 및 광역시	도농복합시	32.2	6.6
	군	13.5	1.0
비수도권	도농복합시	0.5	2.2
	군	4.4	-1.1

주: 해당 기간 시·군별 귀촌 가구원 증감률 평균치를 집계.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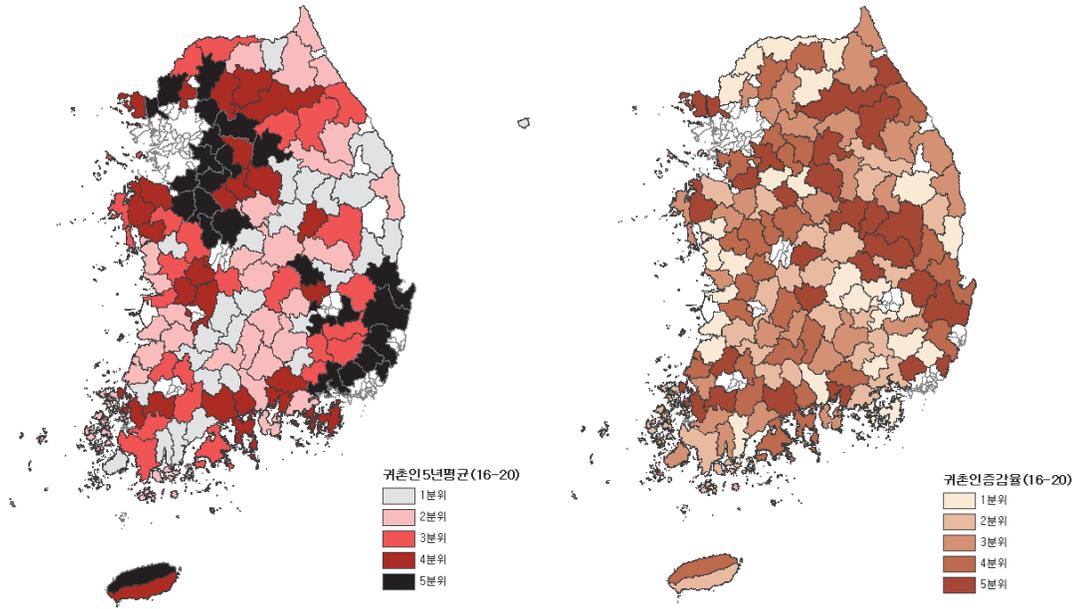
- 2019년 대비 대도시권 도농복합시는 평균 32.2%, 군은 13.5%의 귀촌인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경기도 시·군들은 귀촌 가구원 수 기준 및 증가율 기준 모두 상위 30위권 내에 가장 많은 수가 포함되어 대도시권 중심의 귀촌 경향이 우세함을 보여줌.
- 단,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군 지역 중에서도 최근 다른 지역보다 높은 귀촌인 증가율을 보이는 곳들이 일부 확인됨. 대체로 좋은 정주여건 이외에도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들인 것으로 파악되며, 화천군의 교육 관련 시책, 완주군의 로컬푸드 및 청년 창업·주거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인적 자원 유치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곳들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귀촌인 증가율 30위권 내 해당 군(13개): 홍천군, 화천군, 고성군(강원), 옥천군, 서천군,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무주군, 무안군, 화순군, 보성군, 의령군

〈표 8〉 귀촌 가구원 수 및 증가율 상위 30위권 시·군 목록

시·도	상위 30위권 시·군 목록	
	귀촌 가구원 수 기준	2019~20년 귀촌인 증가율 기준
부산	기장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세종	세종시	세종시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강원	원주시	홍천군, 화천군, 고성군
충북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서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전남	무안군	보성군, 화순군, 무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안동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제주	제주시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21). 『2020년 귀농·귀촌인 통계』.

〈그림 9〉 귀촌가구원 수 및 연평균 증감률 추이 기준 상·하위 시·군 분포(‘16~’20년 평균)



자료: 저자 작성.

04

시사점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농촌의 가치 추구를 희망하는 도시민 저변이 폭넓게 존재함을 시사

-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코로나19 및 대도시 주택 재고 부족·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전원 지향 및 도시 탈출 수요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인구가동이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지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증가 원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베이비부머와 더불어 청년층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작년까지 다소 주춤했던 귀농·귀촌 인구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등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한 시책 발굴 등이 요구됨.

농촌다운 공간을 유지하고 귀농·귀촌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증진할 필요

- 최근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대체로 수도권, 광역시나 지역 거점도시, 혁신도시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생활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영농을 목적으로 한 귀농 가구의 경우도 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절대적 이동량이 많지만, 최근에는 근교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도시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추구하면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화됨을 시사함.
- 귀촌에서는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이주 사유 비율이 증가한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 결국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삶과 일의 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여건을 편리하게 정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농촌 지자체의 전략적인 유인시책 마련 필요

- 교육복지 시책을 통해 학령인구 증가 성과가 나타난 화천군, 청년층 주거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한 완주군, 의성군 등에서는 불리한 도시 접근성을 극복하고 귀농·귀촌 유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비록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일반 농촌 및 원격 농촌 시·군들이라도 인적 자원 유치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성과를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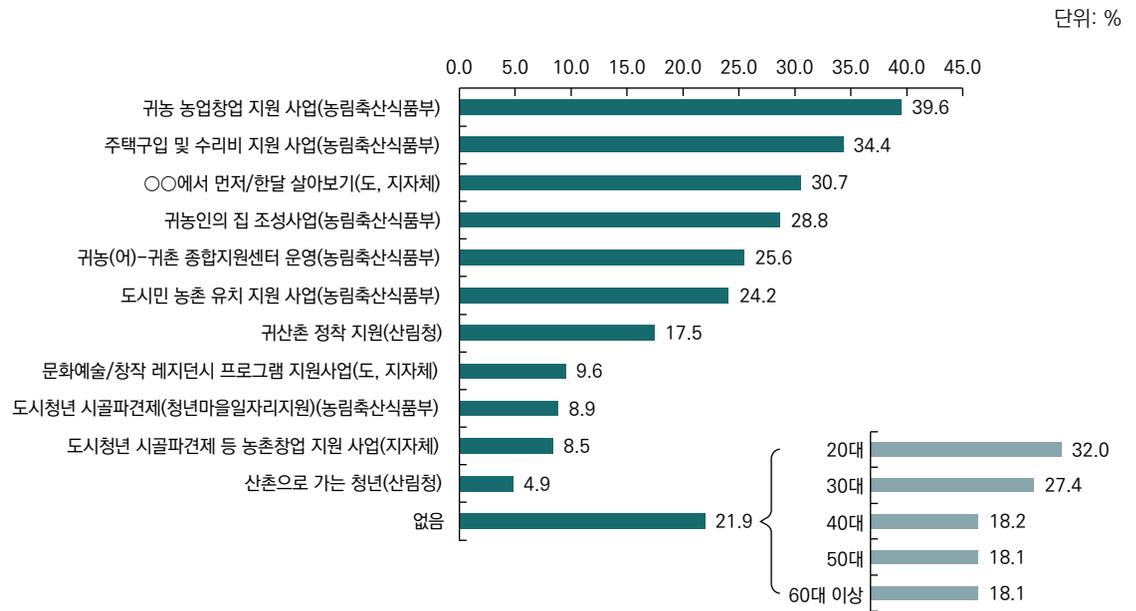
귀농·귀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

- 농촌을 삶과 일의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상당한 수요가 있으므로 귀농·귀촌 인구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청년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처럼 타깃을 분명히 하는 지원사업의 지속과 더불어 농업 일자리 및 농촌에서의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귀농에 필수적인 기존 농가와와의 네트워크 등을 위해 현장 학습과 멘토링 체계화, 농지 및 자금 이용의 수월화 등을 촉진하여 창농과 정착을 도울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살아보기 체험 주택 확대, 빈집 등과 연계 혹은 신축을 통한 임대형 주택 등의 제공도 필요함.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및 정책 홍보 강화 필요

- 귀농·귀촌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일임. 그러나 귀농·귀촌에 대한 의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정보 접근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귀농·귀촌 플랫폼을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 플랫폼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과 활동의 거점으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이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끔 기획해야 함.
-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20대 중 32%는 알고 있는 정책사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함. 정책 홍보 역시 타깃 맞춤형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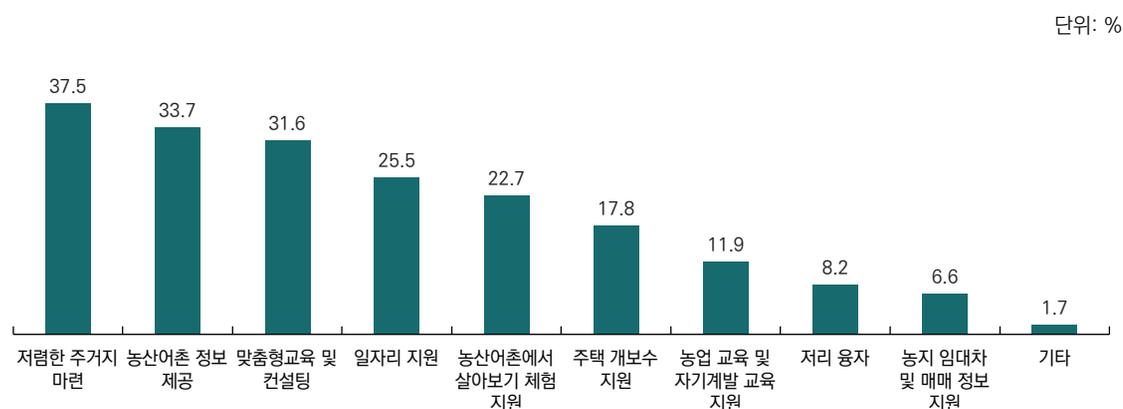


주: 도시민 1,628명 대상 조사.
 자료: 송미령 외(2021).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현 모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생활 선호 문화는 지속 확산 중, 귀농·귀촌 외에도 ‘관계인구’ 등 폭넓은 유형의 정책 대응 필요

- 2020년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함께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들의 농촌 생활 선호 문화는 지속 확대되고 있음. 단지 앞으로는 귀농·귀촌을 넘어서 ‘관계인구’ 등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41.0%는 정기 방문의 형태, 9.71%는 4도3촌 혹은 5도2촌의 반정주 형태, 10.8%는 완전 정주를 원한다고 응답함. 즉,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 여가와 활동 수요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수요가 귀농·귀촌으로 연계되기도 함.
- 특히 농촌과 관계맺을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주거, 문화, 의료 여건 등이 열악하다는 점이 꼽혔음. 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필요한 정책으로 저렴한 주거지,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농업 이외의 농촌형 일자리 연계 등을 들고 있음.

〈그림 11〉 농촌 활동·정주 희망자들의 정책 수요



주: 국민 3,332명 대상 조사 결과.

자료: 송미령 외(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속적인 귀농·귀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터·일터로서의 여건을 갖춘 지역 만들기가 관건

-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시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층까지도 자연환경, 주거 여건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한 국민 설문조사(3,323명 대상) 결과에서도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으로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환경이 있는 곳'을 응답한 비율이 32%로 1위를 차지함.
- 국민이 최저한의 생활 기반을 갖추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촌공간계획제도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함. 이는 비단 귀농·귀촌 인구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을 함께 배려하는 것이기도 함.

참고문헌

- 성주인·한이철·민경찬. 2021. “농촌 정책의 새 지평, 농촌 재생.” 『농업전망 2021 (1월):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p. 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정도채·서형주.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구자춘·정도채·서형주. 2021.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https://kosis.kr>>. 검색일: 2021. 8. 25.
- 통계청·농림수산물부·해양수산부.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 검색일: 2021. 8. 25.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마상진 선임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내 용 문 의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061-820-2351	mrsong@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00호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1. 10.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